

국어 수능특강

비문학 적용학습 예습, 융합 <EBS변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를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 재현하는 ㉡ 유평파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

(나)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평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다)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그의 작품 ㉣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 (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라)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

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1.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 ② 팝아트는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평파이다.
 - ③ 하이퍼리얼리즘은 표현의 사실성을 추구한다.
 - ④ 하이퍼리얼리즘은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다.
 - 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930년대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구현한 영화들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들이었다.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통속적인 문학 작품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로 전쟁 전 유럽의 우울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인공의 몰락으로 귀결되는 비관적인 분위기의 ㉠ 내러티브를 보여 주었다. 영화사가 많은 제작비를 동원하여 인기 있는 연극배우를 출연시켰고, 인공적이고 화려한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을 중시했다. 또한 시나리오 작가, 무대 감독, 조명 전문가, 작곡가 등과 동등한 지위에서 감독이 영화 제작의 일원이자 공동 제작자로서 영화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누벨바그'는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으로 '누벨바그 영화'를 표방하는 감독들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들이 문학 작품에 의존하여 전혀 새로움이 없고,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들이며, 기존의 영화적 관습에 고착되어 영화의 예술성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의 이러한 생각은 영화 잡지 '카이에 뒤 시네마'의 발행인이었던 비평가 앙드레 바쟁이 그의 영화 비평에서 주창했던 바를 추종하는 것이었다. 누벨바그 영화는 1953년 이후 프랑스 정부가 사전 제작 지원금을 제공하여 무명의 젊고 재능 있는 감독들이 저예산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또한 필름, 카메라, 녹음 기계 등 발달된 영화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야외 촬영과 즉흥 연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20세기 영화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다) 누벨바그 영화는 동시대의 카뮈, 사르트르 등의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화 제작에서 감독의 주체성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기존 영화에서 영화의 공동 제작자에 머물러 있던

감독이 자신의 상상력과 잠재력을 담아내면서 영화 제작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누벨바그 영화의 감독들은 사건 전개나 기법 면에서 감독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파격적인 면모를 보여 주었는데, 처음과 중간, 끝이 구별되지 않는 구성, 극적 동기가 없는 사건, 완결되지 않는 내러티브 등의 새로운 기법들을 활용하였다. 그들은 대중들이 선호하는 스타의 기용을 피했고,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또한 TV에서 쓰이던 경량 카메라를 사용하여 생생한 장면을 구성하였고, 스튜디오를 떠나 파리의 거리나 근교를 주된 촬영 장소로 삼았다. 편집에서도 시간적 순서를 왜곡한 편집, 급격한 장면 전환으로 서사의 연속성을 깨뜨리거나 장면을 비약시키는 점프 컷, ㉞ 다큐멘터리와 ㉟ 픽션을 섞는 등의 실험적 편집 방식을 보여 주었다.

(라) 누벨바그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 감독은 장뤼크 고다르로 그는 "㉠ 영화는 삶 그 자체이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 의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영화의 주제 및 형식에 대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는 「미치광이 피에로」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빠른 편집과 점프 컷을 자주 사용했고, 시적 리얼리즘 영화가 보여주는 ㉡ 인과적이고 매끈한 편집을 ㉢ 지양했다. 그는 현장 촬영, 다큐멘터리 제작 스타일을 중시했으며 현장의 생생한 사운드의 채취와 자연광을 선호하는 등 새로운 시청각적 스타일을 보여 주었다. 또한 배우들에게 자유로운 연기를 주문하여 배우들이 대본에 없거나 대본과 다른 장면을 촬영 현장에서 즉석으로 연기하는 것을 선호했다.

(마) 고다르의 실험적 영화 기법은 관객들을 영화 감상의 능동적 주체로 이끌기 위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 기존의 영화에서 관객들은 잘 편집되고 완결성 있는 영화를 보면서 현실을 대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감독의 ㉤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을 주입받았다. 고다르는 실험적 기법을 통해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관객이 작품 이해에 불편을 느끼게 만들어 자신의 모든 지적 능력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영화를 감상하도록 했고 영화의 내용과 기법에 담겨 있는 감독의 의도와 영화의 예술성을 헤아려 보도록 했다.

(바) 누벨바그 영화 운동은 영화 제작의 새로운 방향성과 제작 기법의 다양화를 이끌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오늘날 영화를 감상하고 비평하는 주요한 영화 이론으로 자리 잡은 작가주의 영화가 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를 통해 누벨바그 영화 운동은 세계 영화사에서 고전 영화를 현대 영화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실화나 허구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구조적 형식.
- ② ㉡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전개에 따라 구성된, 기사

(記事)·소설·영화·방송 프로 따위.

- ③ ㉢ 실제의 이야기가 아니고 작자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조한 가공적인 이야기
- ④ ㉣ 어떤 목적으로 뜻이 쏠리어 함함.
- ⑤ ㉤ 어떤 사회 집단의 사상·행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거나 이끄는 관념이나 믿음의 체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은 첫 두 악장만 연주 악보로 존재하고, 3악장은 9마디의 기악 편성과 13마디의 피아노 파트만 남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품을 「미완성 교향곡」이라 부르면서도 완성된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예술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작품을 미완으로 두거나 대상의 일부분을 생략하는 방식을 ‘논 피니토’라 한다. ㉠ 논 피니토는 예술 작품이 완성되기 이전 단계인 스케치, 데생이나 조각의 일부를 통해 미완성이 지닌 예술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논 피니토는 서양에서 르네상스 이후 예술가의 주관적 사고나 상상력을 중시했던 당대의 예술적 ㉡ 풍토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벨베데레의 토르소]

(나) 논 피니토 작품이 창작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가들이 ㉢ 파손된 채 발굴된 고대 조각 「㉣ 벨베데레의 토르소」에 관심을 보이면서부터이다. 이 조각상에서 예술가들은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지만 완성된 조각상 못지않은 강렬한 힘과 에너지를 느끼면서 미완성의 ㉤ 미학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 예술가들은 의도적으로 미완의 작품을 독립된 의미를 지닌 완전한 작품으로 생각하고 그것에서 예술적 가치를 얻으려 했다. 그에 따라 논 피니토 예술가들은 작품을 완성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 초안의 형태나 창작을 시작하기 위해 만든 ㉦ 개략적인 형상을 그대로 두고도 작품이 끝났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작품을 미완성인 채로 두어도 예술적 의도가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감상자의 몫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다) 논 피니토의 관점으로 예술 작품을 창작한 탁월한 예로는 미켈란젤로와 로댕의 조각품들을 들 수 있다. 먼저 미켈란젤로는 예술 작품의 완성은 손에 의한 마무리가 아니라 예술적 진리인 이념에서 구해야 할 문제로 보았다. 미켈란젤로 당시의 조각

의 일반적 방식은 먼저 점토로 원하는 형상의 미니어처를 만든 뒤 대리석에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형상과 재료는 분리되기 마련이었다. 미켈란젤로는 이와 달리 곧바로 대리석을 깎아 작품을 만들었다. ‘형상이란 재료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료 그 속에 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 조각은 물질에 갇힌 형상을 해방시키는 작업인 셈이었다. 예를 들어 그의 「노예」 연작은 논 피니토 기법의 조각품들로서, 일반적으로 미켈란젤로가 돌을 재료로 사용해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나타내고자 했다고 해석되는 작품들이다. 미켈란젤로는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 간주했다. 돌이라는 육중한 질료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 형상들의 고통. 그 고투(苦鬪)의 순간을 생생히 보여 주는 그의 ‘노예’들은 육체와 싸우는 여러 인간 영혼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논 피니토에서는 물질에서 정신으로 상승하는 이 고투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는 미완인 작품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감상자의 몫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각은 3차원적 예술로서 감상자가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했다. (라) 로댕의 경우는 그의 조각에서 고의로 파편화하고 단편화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그의 「걸어가는 사람」은 논 피니토의 미학이 잘 형상화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인체의 머리와 팔 등이 과감하게 제거된 채 오직 걸어가는 사람의 다리와 몸통만이 남겨졌을 뿐인데 걸어가는 사람이 보여 주는 역동성을 압축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로댕은 이 작품에 정과 망치의 흔적을 남겨 놓았다. 다리를 조각하며 생긴 거친 흔적을 부드럽게 깎아 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거나 주조하는 단계 중에 생긴 자국 등을 그대로 둔 채 작품을 끝냈다. 이와 같은 제작 방식은 감상자로 하여금 정교하게 다듬어진 완성작과는 달리 작가의 체취가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하였고, 작품에 담겨 있는 작가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법과 경향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마) 미완의 완성으로서의 논 피니토는 르네상스 이후 예술 작품에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특히, 논 피니토 조각은 창작의 흔적을 노출함으로써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고, 감상자들의 상상력이 가미될 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될 수 있다는 열린 예술로서, 많은 사람들이 미완성의 미학적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윗글의 중심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물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 피니토는 인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논 피니토를 현대 예술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③ 논 피니토의 발생 연도는 얼마인가?
- ④ 논 피니토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 ⑤ 논 피니토의 뜻과 예술적 경향은 무엇인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 미시 세계에서는 ㉢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나)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라)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 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어둬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마)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

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바)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 * 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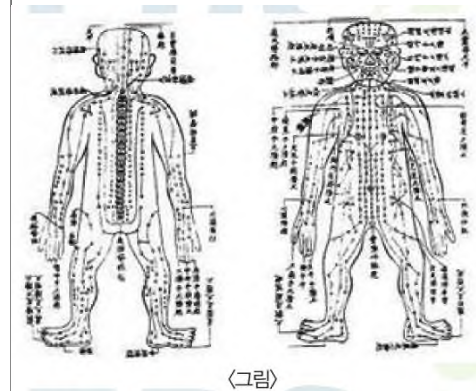
4. ㉠, ㉡, ㉢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서술한 것은?
- ① ㉢은 ㉠이 맞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 ② ㉢은 ㉡이 맞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 ③ ㉢은 ㉠이 틀리다면 불가능한 결과이다.
 - ④ ㉢은 ㉡이 맞다면 불가능한 결과이다.
 - ⑤ ㉢은 ㉠과 ㉡이 동시에 맞는 경우에만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간은 인체를 매개로 세상과 ㉣ 조우한다. 동양에서는 애초부터 자연과 인체를 구분하지 않고 인체를 줄곧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사유해 왔다. 동양에서 자연은 ‘만물의 모체’이자 인위적인 것을 배제한 ‘스스로 그러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자연 원리는 인체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이원적으로 인식하고 자연을 관찰의 대상이자 물질로 여기고 분석과 탐구를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고 서양

의 인체관은 주로 정신과 인체를 분리하는 ㉤ 사유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존재라고 생각한 동양의 ㉥ 일원적 인식과 상반된 것이다.

(나) 동양에서 자연과 인체의 운행은 기(氣)에 근간을 두고 있다. 자연 만물은 생명의 토대인 기의 이합집산을 통해 그 모습을 갖춘다. 즉 자연 만물은 하나의 기가 분화하여 파생된 것으로, 기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모이면 형체를 이루고 거기서 개별적 사물의 성질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 역시 자연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 존재이다. 동양에서는 인체를 자연의 기에 근원한 것으로 자연의 산물로 여겼다. 그리고 동양에서 자연 만물은 대우주, 인체는 소우주로 여겨져 기가 생성되고 형체가 갖추어지면 인체는 우주의 운행과 상응하며 머리는 하늘을, 발은 땅을, 사지는 사계절을, 오장은 오행을, 12명맥은 하늘의 12시를, 눈과 귀는 해와 달을, 기쁨과 노함은 천둥과 번개를, 치아는 땅의 ㉦ 금석(金石)을 본받는다고 보았다.



(다) 기의 관점으로 본 인체관은 동양 의학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림>은 조선 시대에 편찬된 의서 『침구요결』의 「경혈도(經穴圖)」로, 기가 운행하는 통로인 경락을 표시한 것이다. 경락은 기의 운행 통로이므로 병을 진단하는 개념적 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 침을 놓거나 뜸을 떠서, 진단된 병을 치료한다. 가령 폐질환이 생기면 폐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폐와 관련된 경락이 흐르는 팔과 손에 침을 놓는다. 기의 순환과 접속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의 순환과 접속 개념은 동양 인체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이러한 기의 순환과 접속은 몸의 내부로 한정되지 않고 계절적 순환과 맞물려 외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에 따라 인체는 기의 순환과 음양오행(陰陽五行)이라는 개념과 관련지어 이해된다. 음양(陰陽)이란 자연의 운행을 지배하는 기의 두 가지 기본 형식으로서 자연 만물을 해석하는 ㉧ 형이상학적 문법이다. 오행(五行)은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추론한 인식 구조로,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인 동시에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기본 요소이다. 이는 소리와 색, 맛 등 다양한 자연 현상과 문화 현상에 확대 적용된다. 인체 역시 오행에 대응하는 오장(五臟)으로 형상화된다. 오행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여서, 장기에 생긴 질병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른 장기와의 관계가 부적절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인

체는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며 인체의 각 부분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마) 이와 같이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관성을 담고 있는 사상이 '㉠ 천인합일(天人合一)'이다. 천인합일은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의미한다. 이때의 '천'은 자연 질서와 운행의 대명사로 모든 만물의 존재론적 기원이며 종교적 섬김의 대상이다. 천은 자연 일체를 포괄하며, 자연과 동의어로 간주된다. 전통 사상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를 막론하고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이상적인 경지로 보았다. 가령 유학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모두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경지인 천인합일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하였다.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자연과 인체는 기를 통해 연결된 하나의 커다란 개방계를 이룬다. 인체와 마음의 구분이 없고 주체와 객체의 구분도 없다.

(바) 이러한 천인합일의 관점은 산수화의 점경 인물(點景人物)에 잘 반영되어 있다. 점경이란 멀리 점점이 이룬 경치나 풍경에 다른 사물을 그려 넣어 정취를 더하는 것으로, 점경 인물은 회화 풍경 속에 인물이 들어가 그림을 더욱 정취 있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인물이 자유롭게 노닐거나 풍치가 있는 조출한 모임을 갖는 모습, 배를 띄우거나 낚시를 하는 모습, 청산의 빼어난 물가에서 유유히 즐기는 모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점경 인물은 지나치게 정교하지 않으면서도 자세와 표정의 특징을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물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부연 설명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표출하는 것이다. 산수화의 점경 인물 표현은 화면 전체 흐름이 인물 중심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파악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이는 인간과 자연을 일치, 호흡하는 관계로 파악한 자연관이 반영된 것이며, 자연을 인간이 귀의할 안식처로 여긴 자연관이 반영된 것이다.

(사) 동양의 인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자연이었다. 즉 인체는 대우주에 대응하는 소우주였다. 동양의 인체관은 줄곧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전개되었으며 예술 작품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산수화의 점경 인물은 자연의 생명성을 본받고자 한 동양의 천인합일의 인체관이 반영된 것이다. 동양의 소우주로서의 인체관을 바탕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연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이자 현대의 발전과 자연의 ㉡ 간극으로부터 발생하는 ㉢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의 의미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순례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몇 표주박을 들이키니, 상쾌한 기운이 더위를 씻어 준다.
- ② 봄철이라면 벚꽃이 대단하다. 그것도 겹벚 꽃이다. 벚꽃이 제아무리 맵시를 자랑해도 개심사 종루(鐘樓) 한 쪽에서 있는 늙은 매화의 기품을 벚꽃은 가히 넘보지 못한다.

③ 빛의 약동! 색의 환히! 만개한 복숭아 꽃, 오얏꽃, 그 새로이 파릇파릇 움트는 에메랄드의 싹들! 섬세하고 윤택하게 자라나는 아름다운 꽃잎들. 회화(繪畵)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④ 벌거벗은 나무 끝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며 지나가는 매서운 겨울 바람과 눈 덮인 벌판을 차갑게 비쳐 주는 겨울 달빛 사이로 기러기와 청둥오리가 하늘을 비껴 줄지어 날아 가면 겨울은 깊어 같다.

⑤ 신록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파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정조는 자신의 생부였던 사도 세자의 묘인 현릉원을 화성으로 옮김과 동시에 자신의 통치 이념을 새롭게 드러내는 신도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796년 조선 후기 과학 기술과 문화적 ㉠ 역량을 총집결시킨 대역사(大役事)로 평가되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국가 개혁과 관련한 권농 정책의 일환으로 수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시 기반 시설인 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축조한 화성의 3대 제언(堤堰) * , 즉 '축만제', '만년제', '만석거'이다. 당시 ㉡ 축조된 이 세 제언에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데 동원된 역량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 규모가 제일 큰 축만제는 몽리(蒙利) * 면적이 만석거나 만년제의 3배 이상이나 되는 큰 제언으로, 그 아래에 군대 조직인 장용영의 둔전(屯田) * 이 대규모로 조성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 수리 시설들은 그 외에 다른 역할들도 하고 있었다. 만년제는 현릉원의 산소 근방에 위치해 묘소가 갖추어야 할 풍수적 요인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 제방은 만석거와 더불어 왕이 원행할 때 행차하는 길로도 이용되었다. 또한 만석거는 축만제와 더불어 화성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화성 방어를 위한 해자(壕字) * 기능도 겸하였다.

(다) 하지만 이 제언들은 농업 관개(灌漑) * 수리 시설로서의 기능이 무엇보다 두드러졌다. 당시 기존의 수리 시설은 그 시설로 인한 혜택이 미치는 범위, 즉 몽리 면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불완전해 당대 사회의 농업 생산은 근본적으로 자연조건의 변동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리 시설의 정비 및 건설은 정조가 개혁적인 농업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이었다.

(라) 조선 후기 화성 3대 제언이 축조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제언에 설치된 관개 시설로서의 수문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즉 수통 방식과 물빈지 방식이 있었다. 수통 방식은 제언 안의 바닥 쪽에서 제언 밖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물 통로 입구를 여닫

음으로써 관개와 배수를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제언 바닥을 관통하여 수문과 관개 수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논밭으로 유입되는 관개용수는 심층수로서 수온이 낮아 작물들에 냉해를 입힐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㉔ 관개 유로를 길게 하거나 우회시켜 수온을 상승시킨 다음 관개용수로 이용하였다. 또한 물 통로 입구를 여닫기 위해 깊은 수심 속으로 직접 잠수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뿐 아니라, 제언에서 압력이 가장 큰 수문으로 인체가 빨려 들어갈 위험도 있었다.

(마) 물받지 방식은 수문으로 여러 개의 판목을 끼우거나 제거함으로써 관개와 배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상층의 표층수를 먼저 흘러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물의 냉해 위험이 없어 농민 입장에서는 수통 방식보다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물받지를 지탱하는 기둥이나 판목이 수압을 견뎌 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고, 배수 시에도 독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물받지 수문을 제작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제언의 두께가 가장 얇은 곳이자 제언 내의 수압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 수문이기 때문에 물받지 수문은 구조상 취약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바) 화성의 세 제언에 설치된 ㉑ 수갑이라는 수문 시설은 위와 같은 수문 시설보다 정교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성 3대 제언의 ㉒ 요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격판과 이를 지지하는 틀로 이루어진 서 있는 갑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물 난간 모양의 네모난 틀이 연이어져 통로를 이루는 누워 있는 갑문이다. 이 중 서 있는 갑문 부분이 제언 안쪽과 접하고, 누워 있는 갑문의 대부분은 제언의 바닥과 유사한 깊이에 묻히며, 그 끝부분이 제언 밖의 논밭 수로와 연결된다. 제언 안의 물은 서 있는 갑문의 격판 위를 넘어 누워 있는 갑문의 입구로 흘러 들어간 뒤 그 갑문을 통과하여 출구를 통해 제언 아래의 논밭으로 관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격판을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서 있는 갑문의 높낮이 설정을 통해 관개 수량과 제언의 수위를 간단히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누워 있는 갑문 전체가 터널식의 입체 구조식으로 제언의 독 아래에 묻혀 있어 서 있는 갑문을 지탱함으로써 그것이 받는 수압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제언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사) 이렇듯 화성의 3대 제언들은 하나같이 수문 역할을 하는 수갑이 모두 설치되어 관개 기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제언의 견고성도 확보되었다. 그리고 그 우수성은 사용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 삼남 지역이 가뭄의 피해 속에 힘들어할 때 화성의 3대 제언 아래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할 정도였다.

- * 제언 : 오늘날의 댐에 해당하는 저수 시설.
- * 몽리 : 수리 시설로부터 물을 받음.
- * 둔전 : 궁과 관아에 딸린 밭.
- * 해자 :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으로 둘러 판 못.
- * 관개 : 농사짓는 데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댐.

6. [가]~[사]에 대한 중심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수원 화성 건설의 역량이 드러난 3대 제언 축조
- ② [나] : 3대 제언의 수리 관개 기능과 농업 진흥 정책
- ③ [라] : 3대 제언 축조 이전의 수문 방식 수통 방식
- ④ [바] : 3대 제언 수갑 방식의 구조와 관개 및 수량, 수위 조절 방식의 우수성
- ⑤ [사] : 3대 제언의 우수성으로 인한 가뭄 대비 효과

정답 및 해설

1) <답> ④

팝아트가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다.

2) <답> ④

4번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지 않음이라는 뜻이다. 4번은 '지향'의 뜻이다.

3) <답> ⑤

4) <답> ②

거짓말쟁이 문장은 양자 역학과 공통점을 갖는 비고전 논리이다.

5) <답> ⑤

자연과 인간이 동화되어 혼연일체된 모습을 보여주는 글은 ⑤이다.

6) <답> ②

나 단락은 '3대 제언의 농업 경제적, 풍수적, 군사적 기 능'이 나와 있다.